SECTOR
UPDATE

2026. 3. 4

EV/모빌리티팀

임은영 팀장
esther.yim@samsung.com

김현지 Research Associate
hyunzi.kim@samsung.com

▶ 종목 정보

현대차 (005380 KS, 595,000)		
목표주가	800,000원	34.5%
BUY		
기아 (000270 KS, 182,300)		
목표주가	270,000원	48.1%
BUY		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자동차 (OVERWEIGHT)

2월 글로벌 판매: 잠시 과열을 식히면, 더 높이 갈수 있다

- 현대차/기아의 2월 글로벌 도매 판매는 각각 -5.1%YoY, -2.8%YoY 기록. 내수는 영업일 수 4일 감소, 미국은 1Q25에 관세 전 선적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.
-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, 주가는 10% 넘게 급락. 아중동 지역(매출 비중 5%)의 판매감소보다는 미국시장(매출 비중 45%)의 수요 둔화를 우려.
- 2월까지 급등한 주가에 대한 단기 조정 구간. 2026년에 실적 회복과 Physical AI 사업 전개가 유효한 만큼, 단기 조정을 관심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.

WHAT'S THE STORY?

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주가 급락: 연휴 동안 시작된 전쟁으로, 전일(3월 3일)에 현대차 -12%, 기아 -11% 등 업종 전반의 주가 급락.

- **아중동 Exposure는 매출 기준 5% 미만:** 2025년에 현대차 판매 31.7만대(+1%YoY/판매 비중 7.7%), 기아 판매 23.3만대(+3.8%YoY/판매 비중 7.5%). 투싼, 스포티지 등 소형차 중심의 시장으로 매출 비중은 5% 미만 추정.
- **전쟁 장기화 시, 유가 상승으로 미국 수요 둔화 우려:** 2026년 미국 수요는 연간 16백만대 수준에서 정체가 예상되는데, 전쟁 장기화시 감소세 전환 가능. 현대차/기아의 미국 매출 비중은 45% 수준이며, 이익 비중은 60% 수준으로 추정. 2월 YTD로 현대차/기아의 미국 리테일 판매는 하이브리드 판매비중 확대에 힘입어 각각 13.2만대(+4.2%YoY) 및 13만대(+8.5%YoY)로 성장 중.
- **주가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 구간:** 2월 YTD로 현대차 +140%, 기아 +82%, 모비스 +51% 상승 등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업종 전반이 주가 급등. 전쟁 장기화가 아니라면, 주가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.

현대차, 글로벌 도매 판매 30.7만 대(-0.7%MoM, -5.1%YoY): 내수는 전년비 영업일수 4일 감소 영향. 해외는 전년 미국 관세 부과 전 선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.

- **내수 시장 판매, 4.7만 대(-6.4%MoM, -17.8%YoY) 및 M/S 49.1%(수입차 제외):** 그랜저+제네시스 판매는 1.1만 대(-20.5%MoM, -31%YoY), 비중 23.1%(-4.1%pMoM) 기록. 전년비 영업일 수 4일 감소 영향과 함께 개소세 인하 조치가 6월까지 연장되면서 관망 심리 확대. 아반떼는 2월 3,628대(-14%MoM, -23%YoY)로 가장 부진, 모델 노후화 영향. 올 하반기 아반떼/투싼은 풀체인지 모델 출시로 판매 회복 목표. 세단 총 판매는 1.6만 대(-14%MoM, -23%YoY)를 기록했으며, 영업일 수 감소 영향을 아이오닉 6 판매 회복이 일부 만회(1,571대/+541%MoM, +354%YoY)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Samsung Securities

- RV 판매는 2.3만 대(-3.3%MoM, -9.5%YoY) 기록. 특히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소진에 따른 판매 둔화 기저효과로, 1~2월 전기차 판매 회복세. 주요 모델 판매는 팰리세이드(3,081대/-38%MoM, -20%YoY), 투싼(2,972대/-30%MoM, -37%YoY), 코나(2,876대/-9%MoM, -29%YoY), 싼타페(2,679대/-21%MoM, -47%YoY). 제네시스 총 판매는 6,942대(-20%MoM, -32%YoY)로 7천대를 하회.
- 내수 친환경차 판매는 20,881대(+34%MoM, +12.8%YoY)을 기록. 2월 하이브리드 판매는 10,458대(-26.4%MoM, -19%YoY) 및 50.1%(-41.2%pMoM) 비중을 기록. 반면 전기차는 9,956대(+681%MoM, +86.2%YoY)로 1월부터 회복세 지속.

해외 도매 판매, 30.0만 대(+0.5%MoM, -2.3%YoY) 기록: 소비세 감소로 수요 증가와 신차 출시(베뉴, Aura)효과로 인도 판매 호조, 미국은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 지속.

- **미국 2월 SAAR 수요, 15.6백만 대(+5.1%MoM/-6.0%YoY):** 전년비 영업일 수는 24일로 동일하나, 9월 말 IRA 세액공제 종료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 급감 영향.
- **미국 인센티브 증가:** J.D. Power, GlobalData 추산 2월의 산업 평균 예상 인센티브는 3,293달러(+3.2%MoM/+2.0%YoY)로, 10월 급감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. 전기차 인센티브는 평균 10,356달러(-4.0%MoM, -0.5%YoY)로 소폭 감소. 평균 거래 가격은 승용/전기차 모두 전년비 약 3% 상승하며, 미국 신차 수요 냉각.
- **현대차 미국 소매 판매, 71,407대(+17.5%MoM, +5.7%YoY):** 9월 말 IRA 보조금 종료에도 아이오닉 5모델 판매는 3,239대(+32.6%YoY)로 견조. 전년 말 출시된 아이오닉 9은 505대 판매. 아이오닉 6는 229대(-77%YoY)로 부진. 2025년 10월부터 팰리세이드 HEV 판매 가세로 하이브리드 중심 판매 성장 지속. 2월 주요 모델 판매는 투싼(17,277대/+5.9%YoY), 싼타페(11,344대/+18.6%YoY), 팰리세이드(10,025대/+28.4%YoY). 제네시스 판매는 5,730대(+3.3%YoY)로 견조. 2026년 누적 13.2만 대 판매로, +4.2%YoY 성장.
- **인도 도매 판매, 66,134대(+12.6%YoY):** 내수 52,407대(+10%YoY) 및 수출 13,727대(+25%YoY). 지난해 9월 인도 정부의 GST(Goods and Service Tax) 인하 효과와 신차 베뉴 판매 호조 영향. 가격에 민감한 A와 B세그먼트의 수요 호조 지속.
- **3월 판매, 34만 대(-3%YoY) 예상:** 3월까지는 전년도에 관세 부과 전 수출 선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판매 부진 예상.

기아, 글로벌 도매 판매 24.7만 대(+0.7%MoM/-2.8%YoY): 영업일 수 4일 감소로 인한 내수 판매 부진을 유럽 판매 회복으로 만회.

- **내수 시장 판매, 4.2만 대(-2.5%MoM, -8.6%YoY) 및 M/S 44.0%(수입차 제외):** 세단 9.8천 대(-17.3%MoM, -2.8%YoY) 기록. K3 단종 영향을 레이EV, EV4 등 전기차 판매 회복으로 만회. 주요 모델 판매는 레이(3,241대/-27%MoM, -24%YoY/전기차 880대), K5(2,175대/-21%MoM, -13%YoY), EV4(1,874대/+373%MoM) 등. 모닝은 유일하게 전년비 +49% 판매 성장(1,141대/-45%MoM)
- RV 라인업은 2.5만 대(-7.7%MoM, -21.5%YoY) 기록. 쏘렌토(7,693대/-8.3%MoM, -15%YoY), 스포티지(3,800대/-37%MoM, -42%YoY), 셀토스(1,430대/-61%MoM, -70%YoY) 등 주요 모델의 하이브리드 라인업 판매 부진. 반면 EV 라인업(EV3,5,6,9) 판매 호조로 일부 상쇄. 지난해 3월 출시된 픽업트럭 타스만은 328대 판매(-12%MoM)으로 부진한 성적 지속.
- 내수 친환경차 판매는 27,757대(+34.4%MoM, +32.8%YoY) 기록. 하이브리드 판매는 13,269대(-22%MoM, -18%YoY)로 약 47% 비중, 전기차 판매를 하회. 2월 전기차는 14,488대(+299%MoM,